

서 평

Nicholas R. Lardy.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중국 WTO 가입과 세계 경제로의 통합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I. WTO 가입의 의미

2001년 말 중국은 정식으로 WTO에 가입했다.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의 WTO 가입은 큰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경제가 걸어온 독특한 이력(履歷)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이 갖는 의미는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중국 내외에는 중국 WTO 가입 효과를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서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한 중국 정부 시각과 대비되고 있다.

우선 개혁개방 정책을 20년 이상 이끌어 온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WTO 가입은 개혁개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다.

1978년 이후 24년간 중국 사회가 걸어온 변화와 발전을 한마디로 '개혁개방'의 시대라고 뭉뚱그려 부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1992년 덩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공식화 된 이후의 시기는 그 전 시대와는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전통적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transition)이 앞 시기의 과제였다면, 1992년 이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기는 시장 경제로의 이행이 이미 분명한 상태에서 - 이행경제(transition economy)라기보다는 - 하나의 발전경제(developing economy)로서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발전 모델을 구축하느냐가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에 그 동안의 시장 경제가 초래한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추가되었다.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이 WTO 가입에 부여하는 의미는 이 문제들의 해결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선 WTO 가입은 시장 경

제가 새롭게 초래한 구조화된 부정부패, 소득불평등, 기득권층의 저항 등의 문제를 체제와의 타협을 통한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매개로 한 가일층의 국내 개혁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동력이다. 또 중국 특색의 발전 모델을 탐색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WTO 가입은 중국이 세계 경제로의 적극적 통합(integration)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분명한 발전 방향을 정립하였음을 선언하는 효과가 있다(로렌스 브람 외, 2002: 199-208).

중국 공산당은 WTO 가입을 통해 이미 시효가 다한 ‘개혁개방’이나 그 내용이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슬로건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세계화(globalization)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도입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워 대내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잡고 13억 대중에게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그 동안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 온 개혁의 성과를 회의와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아 온 일부 서구의 관찰자들은 중국이 WTO 가입의 충격을 견뎌낼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충격은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우선 WTO 가입에 따른 관세 완화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외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중국 산업의 기반을 잠식하게 될 것이며, 개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국유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전체 인원의 1/3에 가까운 비생산적 인력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아직도 절대 다수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 역시 WTO 가입의 충격을 받아 피폐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WTO 가입은 중국이 지금까지 누적시켜 온 많은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한번에 폭발시키는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결국 머지 않아 공산당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든 G. 창, 2001).

중국 내부에서도 시점(視點)은 다르지만 WTO 가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좌파라 불리는 중국 내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WTO 가입을 계기로 가속화될 ‘시장’으로의 질주가 중국의 산업과 중국인들의 삶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령 한더치양(2001)은 시장의 능력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이른바 시장 낭만주의, 혹은 시장 낙관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WTO 가입이야말로 그러한 낙관주의의 결정판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은 결국 유치(幼稚) 산업 단계에 있는 중국 국내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고, 중국을 미국 중심 세계 체제의 주변국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우려한다(한더치양, 2001). 시장에 대한 맹신이나 비교우위론의 환상을 버리고 주요 산업과 전략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WTO 가입이 경제 발전 과정의 단순한 통과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즉

WTO 가입은 20년 이상 중국이 겪어온 변화를 총괄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결정적인 시점(時點)에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일 수도 있고, 그 동안 감춰져 온 모순의 폭발점일 수도 있으며, 중국 내부의 날로 가중되는 긴장과 대립의 충돌점일 수도 있다.

라디(Lardy)의 『중국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은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사건을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에 끊임없이 통합되는 과정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을 포함하게 될 세계 경제 체제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주장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지만, 중국 내부자가 아닌 서구 연구자의 객관적 시각과 설득력 있고 상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II. 세계 경제로의 통합 과정으로서의 개혁개방

비록 그 동안 중국이 성공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보호주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중국이 세계 유수의 교역국으로 성장하였고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피상적(shallowly)’인 통합에 머물러왔다는 것이다.

우선 시장 개방 측면을 보면, 비록 중국이 2001년 5,000억 달러가 넘는 교역 규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세계 경제로의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중상주의적인 수출 촉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요 산업과 시장은 여전히 높은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수출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이나 수를 통제함으로써 무역권을 제한하고 있고, 수입품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검사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각종 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조달 등에서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에게는 현지 부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도, 중국이 비록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계 기업들은 해외에서 기계와 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시 해외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중국 국내 경제와의 유기적 관련이 없는 비지(飛地, enclave)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산업 생산의 1/8만을 점하고 있을

뿐만 외국계 기업이 중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한 증거이다. 여기에다 수출에 종사하는 많은 중국 기업들 역시 수입된 원료와 부품을 단순 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수입품 구성을 보아도 외국계 기업이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등이 중국 전체 수입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계 기업이 수출을 위해 수입하는 원료나 부품의 비율 역시 매우 크다. 그밖에도 무역 등 경상 거래에서는 외환 거래를 자유화했지만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외환 거래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중국이 피상적인 통합에 머무르고 있는 증거라고 본다. 중국은 대외 부문과 대내 경제가 분리된 이중(dualistic)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사실상 폐쇄되고 보호되었던 중국 산업은 WTO 가입에 따른 개방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상세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첫째, 선진국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이리저리한 장벽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경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개방도는 결코 낮다고 말할 수 없다. 중국의 무역 자유화 정도는 발전도상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에 대한 개방 면에서도 외국계 기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을 정도이다.

둘째로 중국은 지금까지 매우 신속하게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 및 외환 정책을 실시해 왔다. 저자는 이를 상세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강조한다. 가령 WTO 가입 직전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5% 정도인데, 이는 1980년대 최고 수준에 비해서는 1/3 수준까지 낮아진 수치이다. 또 관세수입이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6% 선에서 4~5% 선으로 크게 낮아졌다. 비관세 장벽 면에서도 수입 쿼터 또는 허가가 필요한 상품의 종류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80%나 감소하여 이제는 전체 관세 부과 품목 중 4%만이 영향을 받을 뿐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은 기업의 무역권을 확대하고 있고 향후 3년 내에 모든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기도 하다. 환율의 인위적 과대 평가나 이중 환율제도 1990년대 중반 폐지했다.

셋째, 저자는 국내 체제 개혁 자체가 세계 경제에 대한 통합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정부의 가격 통제를 줄이고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가격 자율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에서 국가 지도, 혹은 국가 통제 가격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1999년 기준으로 소매상품의 90%, 농산품의 80%가 시장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 자율화는 시장 개방과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를 세계 시장에 통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가격 자율화와 시장 개방을 매개로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수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통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992년에 벌써 95%이상의 수입 상

품이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국제 가격이 주는 신호가 중국 국내 산업에도 전달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 및 제조업에서 국제 가격에 준한 자원의 재배분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통합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국의 상대적인 경제수준과 수년간 진행되어온 개방 정책의 맥락을 주목하여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종종 무시되기는 하지만-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일견 세계 경제에 대한 통합과는 무관해 보이는 중국의 국내 개혁 정책들이 사실상 세계 경제에 중국이 통합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있다. 즉 중국과 같이 전통적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경제에서는 세계 경제에 대한 통합이란 단순히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에 시장을 도입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세계 경제에 대한 통합의 핵심은 시장을 통해 합리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III. WTO 가입의 충격과 구조조정

WTO 가입이 중국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다. 중국이 그 동안 피상적으로만 세계 경제에 통합되었을 뿐, 실제로는 국내 산업 보호에 급급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WTO 가입은 중국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지배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든 G. 창, 2001). 한편 중국 내의 신좌파 역시 WTO 가입의 충격으로 중국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그 결과 도시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농촌이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WTO 가입에 대한 반대로 연결되기도 한다(한더치양, 2001).

저자는 이러한 우려가 명백히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방직, 섬유, 전자재, 비철금속 등 많은 산업이 막대한 노후 설비와 과잉 인원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 산업이 해외로부터의 경쟁에 노출되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강요될 경우 많은 기업의 파산과 대량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저자는 중국이 WTO 가입 이후의 받게 될 충격을 분석한 실증적 평가들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수행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추정들은 특히 최근 2~3년 간의 여러 긍정적 변화를 무시함으로써 개방으로 인한 가격 인하의 충격, 나아가 거시경제에 주는 충격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국유기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선언한 이후 중국에서는 불과 수년 사이에 국유기업 전체 노동자의 1/3 가량이 정리해고(시아강, 下崗)되었을 정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구조조정 결과 2000년대 들어 중국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중국은 나름대로 개방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고려할 때, 설사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많은 국유기업들이 해외로부터의 경쟁에 노출되더라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갑작스런 충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산업이라고 예상되고 있는(陳玉明, 2000: 99-110) 자동차 산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록 WTO 가입 협정에 따라 수입차의 관세율이 2006년까지 100%에서 25%로 75%나 낮아지게 되지만 실제로 자동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5%의 정도의 가격 인하로 나타날 뿐이다. 더욱이 세계 각 국의 자동차 메이저들이 속속 중국 시장에 상륙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의 자동차 가격인하를 초래하는 요인은 관세인하보다는 오히려 공급능력의 지나친 확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인 은행업의 경우를 보면, 일부에서는 WTO 가입 후 5년 이내에 외국 은행이 중국 국내 금융의 15%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2000년 현재 이미 177개나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의 중국 금융 자산에 대한 점유율은 피크에 달했던 1997년에도 1.9%에 불과했고,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자산 총액 면에서나 비율 면에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업에 대한 개방 이후에도 외국계 은행의 인민폐 자산의 비율이 외화 자산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등의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단시일 내에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5배 이상 늘릴 것이라는 예상은 비현실적이다.

다른 한편, WTO 가입은 특히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노동집약적 산업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수파차이, 2002: 46). 이는 중국 정부가 내심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에서 일부 국가들이 WTO 규정을 위반하며 부과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수입 제한 조치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풀리게 되면 훨씬 많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의류 산업의 경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일부 산업에서 실업이 늘어나더라도 여타 부문에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면 그 충격은 상쇄될 수 있다.

개방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분야는 농업이다. 실제로 곡물 생산 등 일부 중국 농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唐文琳, 2000: 71-75) 때문에 WTO 가입에 따라 중국 농업과 농민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문제를 중국의 전반적

산업구조 변동과 연결하여 볼 것을 요구한다. 즉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라 1990년대 10년간 농업 부문의 노동자수는 1991년에 3억 9000만 명으로 피크에 달한 후 매년 400만 이상 씩 감소하여 1999년 말에는 3억 5400만 명으로까지 감소했다. 반면 WTO 가입 이후 2010년까지 10년 간 농업 부문에서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잉여 인력의 규모는 1,100만명 수준으로 매년 10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충격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지금까지 WTO 가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은 이해관계에 따라 적지 않게 과장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가입을 반대하는 신좌파 측에서나 가입에 따른 준비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 쪽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이 책에서는 가입의 영향을 현재 진행 중인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 구조 고도화의 전체적 흐름과 연결시켜 파악함으로써 냉정하게 그 충격의 수준을 가늠하고 있다.

IV.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

지금까지 중국 WTO 가입의 영향을 주로 그것이 중국 경제 자체에 갖는 의미와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경제 규모와 2,500억 달러가 넘는 수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이며, 향후 상당기간 7% 수준의 고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 특히 노동 집약적 상품에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노동 집약적 상품의 수출에 주력하는 일부 발전도상국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이들 국가들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에게 시장을 크게 잠식당했다(수과차이, 2002: 123-127).

저자 역시 중국 WTO 가입이 세계 경제에 대해 주는 충격과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저자는 중국은 10년 내에 거의 확실히 세계 2대 교역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은 가장 강력한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 기지가 될 것이며 점차 IT, 전자, 내구재 쪽으로 산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저자는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한다. 즉 중국의 성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을 위협할 것이지만, 중국 경제와의 보완성이 강한 홍콩, 대만, 한국, 일본 등은 오히려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본다.

독특한 것은 저자는 중국 경제의 거대한 잠재력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이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한 주요한 이유는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 때문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WTO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해 WTO가 규정하는 일반적인 원칙들 이상으로, 심지어 그 원칙을 어겨가면서 엄격한 가입 요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이 그토록 오래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중국의 WTO 가입 조건을 다른 나라에 적용되었던 조건들과 상세히 비교하고, 그것이 WTO 창립 당시 적용된 규정이나 1995년 이후 가입한 다른 나라에 적용된 조건에 비해 훨씬 엄격하였음을 확인한다. 이른바 WTO plus 규정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이나 반덤핑 심사와 관련된 규정은 성원국에 대한 무차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의 정신에조차 어긋나는 것이다.¹⁾

이러한 분석은 중국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 갖는 또 다른 함의에 대해서도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 야기하는 새로운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각국이 어떠한 기회와 압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새로운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WT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형성될 국제 무역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국제적 연대와 대립의 가능성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V. 편견과 기득권의 색안경을 넘어

이 책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평가하고 있다. 그 평가를 위해 저자는 중국은 지금까지 얼마나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 왔는가, WTO 가입이 구체적으로 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중국 경제와 사회는 그 충격을 견뎌 낼 것인가, 중국의 통합은 거꾸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답하고 있다.

이 책의 분석은 매우 중국 경제의 성과,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통합 정도를 평가하는 데서 매우 공정한 시각을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든 창(2001)을 비롯한 상당수의 서구 중국 관찰자들은 중국의 변화를 평가하는데서

1) 각국은 중국의 WTO 가입 후 12년간 중국 상품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래 WTO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있어서도 가입 후 15년간 비시장경제 규정을 적용해 관정국이 중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자의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만들어졌다.

중중 공정함을 결여한다. 즉 횡단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과는 다른 발전도상국이나 체제이행국들의 그것과 비교되어야 하고, 시계열적으로 볼 때도, 진행 중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모습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중중 저널리스트들의 중국 관찰은 이러한 중횡(縱橫)의 비교 맥락을 놓치곤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부른 중국 경제에 대한 예찬이거나, 편견에 경도된 중국 경제 비판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 배후에는 단순한 분석능력 결여 뿐 아니라, 지나치게 투자대상으로서의 중국에만 주목하는 일면적 시각이 깔려있거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편협한 이념적 불신이 깔려있다. 그러나 라디는 이미 20년 이상 중국 경제를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온 정도와 과정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그려 보여주고 있다.

또한 WTO 가입이 중국 주요 산업에 주는 충격을 평가하는 저자의 분석은 중국 내외에서 WTO 가입의 충격을 과장하는 여러 주장들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실증적 반박 근거를 제시한다. 사실 WTO 가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주로 국유기업에 종사하는 도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과거 전통 사회주의 시절 구축된 기업 단위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중국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층이기도 하다(한홍석, 2001).

그런데 중국의 WTO 가입은 전통 국유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지만 다른 한편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에서 성장하고 있는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농촌에서 배출되는 잉여노동력이다. 즉 중국의 WTO 가입이 초래하는 후생적 결과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국 산업 일반에 대한 부정적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 국유기업의 노동자들로부터 민간기업 및 농촌 출신 노동자들로의 소득재분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WTO 가입의 충격을 과장하는 여러 주장이 사실은 도시 국유기업 노동자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일 가능성이 있음을 폭로해 준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아직도 편견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견해들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라디 역시 공평무사(公平無私)한 객관적 분석만을 하고 있다고 볼는 없겠지만, WTO 가입을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중국 개혁개방의 역사적 및 세계경제적 맥락 속에서 다루는 최소한의 공정함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소개서들과는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 문헌 》

- 고든 G. 창. 2001. 『중국의 몰락』. 형선호 역. 뜨인돌.
- 로렌스 브람 외. 2002. 『중국의 시대』. 이진수 역. 민음사.
- 수파차이 파닛차팍·마크 L. 클리포드. 2002. 『중국과 WTO』. 박정숙 역. 에코리브르.
- 한더치양. 2001. 『13억의 충돌』. 이재운 역. 이후.
- 한홍석. 200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딜레마: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문제를 중심으로」. 中蘇研究 (89).
- 陳玉明. 2000. 『中國加入WTO各行業前景分析』. 經濟日報出版社.
- 唐文琳. 2000. 『應對WTO-中國九大行業的危機與對策』. 廣西人民出版社.
- Zhang Yunling. 2000. "Is China ready for entering WTO?"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KIEP seminar.